

## 범패자료조사기 (梵唄資料調查記)

洪潤植

언젠가는 역사(歷史)의 흐름 속에 깊이 파고 들어 이 민족(民族)의 정서(情緒)를 다듬고 영양소(營養素)를 제공(提供)하여 오던 범패(梵唄).

불교(佛敎) 쇠퇴와 더불어 그 흔적마저 사라져 가고 있는 상처 투성이인 문화재(文化財)의 자료(資料)를 찾아 전국(全國)을 대상(對象)으로 조사(調查)해 본 일을 적어본다.

지난 해 불교신문(佛敎新聞)을 통하여 그 일부(一部)를 소개(紹介)한 바 있어 여기서는 그 속편(續編)을 옮겨보는 것이다.

해동(海東) 第一 가람(伽藍)으로 이름 높은 해인사(海印寺)에선 주지 박기종(朴基宗) 스님의 지성(至誠)으로 범패(梵唄)의 재인식(再認識)을 가져오게 하여 하루에 한 시간씩 승려(僧侶)들로 하여금 이를 교습(敎習)케 하고 있었다.

이런 일들은 신라(新羅) 고려(高麗)를 거쳐 한창 융성하던 불교(佛敎)의 전성기(全盛期)를 연상(聯想)케 하였다.

다음날 아침 스님들의 범패(梵唄)소리 구에 쟁쟁 울리는 듯 아쉬운 마음을 부여안고 수도(修道)의 가람(伽藍)을 뒤로 하고 다음 행정(行程)을 쫓아 발 길을 옮겨 보는 것이다.

진주(晉州)를 중심(中心)으로 여러 곳을 수소문 하였으나 별로이 자료(資料)가 될만한 것을 얻지 못하고 범패(梵唄)의 최고(最古) 문헌(文獻)이 전하는 하동(河東) 쌍계사(雙溪寺)를 찾았다.

원래(元來)는 옥천사(玉泉寺)로 불리우던 절인데 진주(晉州) 옥천사(玉泉寺)와의 사명(寺名) 혼돈을 피하여 양(兩)쪽 계곡(溪谷)이 흐르는 중앙에 위치하였다. 하여 쌍계사(雙溪寺)라 이름 지었다고 하는데 비록 지금은 폐허에 가까우리만큼 이지러진 데가 많아 허전한 듯 보였으나, 가지가지 전설(傳說)을 간직한 삼신산(三神山)의 언저리에 아름다운 풍치(風致)를 배경으로 묵묵히 자리잡은 쌍계산(雙溪寺)엔 슬한 사적(史蹟)이 전하여지고 있는 것 같아 일주문을 들어서서 필자(筆者)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었다.

제일 먼저 눈에 띄인 것이 진감국사(眞鑑國師) 대공탑비석(大空塔碑石)이었는데 千餘年을 갖은 풍파(風波)에 시달려 이지러진 데가 많았으나 문화재(文化財) 보호(保護)의 혜택을 받아 겨우 양(兩)쪽을 철테로 둘러 싸인채로 파괴되지 않고, 그래도 만고(萬古)의 문장가(文章家) 최고운(崔孤雲) 선생(先生)의 필치(筆致)와 진감국사(眞鑑國師)에 대한 사적(史蹟)을 찾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천만(千萬) 다행(多幸)이었다. 비문(碑文)에 새겨진 글귀를 읽어내려 가다가 「아선범패금옥기음(雅善梵唄金玉記音)……」 이란 구절을 보았을 때엔 무량(無量)한 감개(感慨)가 북받쳐 오랐다.

이 글을 인용(引用)한 문헌(文獻)은 여러 곳에서 이미 보아왔지만 범패(梵唄)가 당(唐)나라에서 전해졌다는 사실(事實)을 비문(碑文)에 옮겨 쓸 적에는 그 범패(梵唄)가 얼마나 중요(重要)한 것이었으며, 우리 불교사(佛敎史)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問題)를 환기시켜 주었다.

여기 비문(碑文)에 새겨진 범패(梵唄)에 대한 자료(資料)를 소개(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雅善梵唄 金玉記音 側調飛聲 三快哀怨  
能使諸天歡喜 永於遠地 流傳學者 滿堂  
……至東國習)……奧山之妙音也……

윤기원(尹基元) 주지(住持)스님 말에 의하면 數十年前만 하더라도 쌍계사엔 조범해(趙凡海)스님이란 분이 계셔 진감국사(眞鑑國師)의 전통(傳統)소리를 이어왔다고 한다. 그 스님께서 제자(弟子)를 안 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이미 모두 고인(故人)이 되었으니 그 유음(遺音)을 들을 길이 없음이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안차비소리만을 할 줄 아는 김덕용(金德用), 손우택(孫愚澤) 두 스님이 계셔 그래도 그 소리의 일부(一部)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多幸)한 일인지 모르겠다.

주지(住持)스님의 안내(案内)를 받아 진감국사(眞鑑國師)께서 기거(起居)하시며 직접(直接) 범패(梵唄)를 가르치셨다는 국사암(國師庵)을 찾아 손우택(孫愚澤)스님을 만났다. 에서 범패(梵唄)의 조종(祖宗) 사찰(寺刹)임을 강조(強調)하시며 계정향(戒定香) 소리를 위시하여 가영(歌咏), 번자(煩子), 착어성(着語聲) 등을 들려 주시는데 지금(只今)까지 들어보지 못한 특이(特異)한 소리였다. 경산조(京山調)와 영남조(嶺南調)의 차이(差異)가 있는 줄은 알았으나 같은 영남(嶺南)소리에 속하면서도 완연히 구분되어지는 소리, 이를 녹음(錄音)하며 과연 이 소리가 전통(傳統)소리인가 하는 것을 마음 속으로 기대를 걸어 보았다. 이능화선생(李能和先生)은 「불교통사(佛敎通史)」에서 범패(梵唄)의 정통(正統)소리는 지리산(智異山)을 중심(中心)으로 전하여져 왔다고 밝히고 있다.

梵唄一道，始終不離於，智異山，以音聲度 其亦緣有所在……

그리고 손우담스님 말에 의(依)하면 화엄사(華嚴寺)에 가면 쌍계사(雙溪寺)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저으기 희망(希望)을 가지고 다음날은 천년(千年)의 꿈을 안은 고찰(古刹) 화엄사(華嚴寺)를 찾았다.

신라(新羅) 진흥왕(眞興王)시 연기조사(緣起調查)께서 창건(創建)하시고 수천(數千)의학(義學)을 양성(養成)하여 오묘유현(奧妙幽玄)한 화엄종지(華嚴宗旨)를 해동(海東)에 유통(流通)하므로써 신라(新羅)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요람지(搖籃地)가 되었다는 당사찰(當寺刹)는 수많은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지리산간록(智異山間麓)에 위치(位置)한 유일(唯一)한 고찰(古刹)이다. 뒤로는 천왕봉(天王峰) 반약봉(般若峰)이 화엄(華嚴) 도장(道場)의 상징(象徵)인 듯 솟아 있고, 좌우(左右)엔 해도 달도 쉬어늘다 넘는다는 일유봉(日遊峰) 월유봉(月遊峰)이 멀리 섬지의 장강일곡(長江一曲)을 굽어 보며 장관(壯觀)을 이루는데 화엄종지(華嚴宗至)의 법진(法賑)을 묵묵히 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 역대(歷代)로 선교(禪敎) 대덕(大德)이 대출되어 화엄종풍(華嚴宗風)의 극성(極盛)을 이루세 하니 그 불국토(佛國土)의 장엄(莊嚴)은 가(可)히 그 법열(法悅)을 어찌 소리내어 읊지 아니하였으리오,

거벽 어장(魚丈) 종사(宗寺)로 선암(宣庵)스님의 직계(直系) 제자(弟子)로 이름 높은

류춘파노장(柳春波老丈)은 줄곧 數十年의 범패(梵唄)로써 생애를 마치게 된 감회(感懷)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장장 백세(百歲)의 고행(高僧)스님께 녹음을 부탁 들인 다는 것은 여간 무리가 아니었으나 이제 당대(當代)를 마지막으로 화엄사의 범패성(梵唄聲)은 종적을 감추게 될 것이라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찬 숨을 들러 가며 무려 세시간에 걸쳐 겨우 몇 곡(曲)을 들려 주셨다. 경산(京山)소리도 아니요 부산지방에서 들을 수 있는 영남소리라 분류(分類)한 그 소리와도 완전 구분(區分)되어지는 독특(獨特)한 소리였다. 그런데 오직 쌍계사(雙溪寺) 소리와는 것의 계통(系統)을 같이한 소리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굴곡(屈曲)이 유장(悠長)한 점은 부산지방(釜山地方) 소리와 같았으나 속청을 빼어 나가는 특별(特別)한 창법(唱法)은 쌍계(雙溪) 화엄(華嚴) 양사(兩寺)에서만 보존(保存)되어온 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노장(老丈)께선 일찍이 수십명(數十名)을 제자(弟子)를 두었으나 이미 모두 고인(故人)이 되었고, 심지어 그 많은 제자(弟子)들의 제자(弟子)마저 황하담(黃河潭)씨 한 분이 생존(生存)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은 법사(法師) 이병헌(李秉鉉)스님의 안내(案内)를 따라 곡성(谷城) 도림사(道林寺)를 찾았다. 여기는 범음집(梵音集)의 판본(板本)이 있던 말을 듣고 문헌(文獻) 자료(資料)를 찾았으나 겨우 불교의식(佛敎儀式)의 절차(節次)나 범패(梵唄) 가사(歌辭)에 대한 내용(內容)이 수록되어 있는 것뿐 별다른 자료(資料)를 얻지 못하고 다시 남원지방(南原地方)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지방(地方) 역시 헛수고로 돌리고 부득이 전북지방(全北地方) 문화(文化)의 중심지 전주(全州)를 대상으로 자료 조사작업(調査作業)은 새로운 각도(角度)에서 시작(始作)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우선 전북(全北) 불교종무원(佛敎宗務院)을 찾았더니 마침 이곳에는 전북지방(全北地方) 승려(僧侶) 강습(講習)이 있어 각처에서 모여든 스님들을 통하여 조사(調査)에 응할 수 있는 편의(便宜)를 제공(提供)받을 수 있었다. 또한 불교(佛敎) 교단(敎團)에서 발생(發生)한 문화적(文化的) 유산(遺産)임에도 불구하고 범패(梵唄)의 쇠퇴와 더불어 승려 자신(僧侶自身)들마저 잘 모르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범패(梵唄) 감상회 및 강연(講演)등을 이곳에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간 마음 흐뭇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곳 주지(住持)스님의 안내로 전주시내(全州市內) 이길남(李吉男)스님과 이재호(李在浩)씨를 만나 이들 소리를 쉽게 녹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척 고마운 일이었다.

이길남씨(李吉男氏)는 서울 전우운(田雨運)스님 계통(系統)의 소리요, 이재호씨(李在浩氏)는 역시 서울 월하(月下)스님께서 배운 소리로 모두 서울지방(地方) 소리였으나 보다 힘차고 우렁찬 소리로서 이 지방(地方)의 토속(土俗)소리에 동화(同化)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것은 다음 날 김제(金堤) 금산사(金山寺)의 이건석씨(李建碩氏) 소리와 비교해 봄으로써 더 명백(明白)하게 나타났다. 이건석씨(李建碩氏)는 전주지방(全州地方) 어장(魚丈)의 거성(巨星) 김진흥(金鎭興)스님께 배운 소리로 음(音)의 굴곡(屈曲)은 서울소리와 같았으나 보다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는 전기 이길남(李吉男), 이재호(李在浩) 양씨(兩氏)의 소리와 같이 이 지방의 특징(特徵)있는 소리와 구분(區分)되었다.



<page 136 그림>

금산사(金山寺)에서 하루 쉬어 피로를 푼 다음 전남지방(全南地方)으로 옮겨 먼저 장성(長城)의 대본산(大本山) 백양사(白羊寺)를 찾았다. 울창한 녹음에 둘러싸인 근대(近代) 한국불교(韓國佛敎)의 혜성적 종사(宗師) 목만음(木曼庵)스님의 사리탑(舍利塔)에 먼저 합장(合掌)하고 일주문(一柱門)을 들어 섰다. 허다한 풍우(風雨)에 시달려 폐허의 슬픔을 외로이 달래며 쓸쓸히 지켜온 부처님의 도장(道場)은 우리 후손(後孫)들의 손길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총무(總務)로 계시는 김상현(金尙鉉)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중 마침 자신이 직접 소리를 보유(保有)하고 계신분이라 쉽게 녹음청취할 수 있었으나 그 보다도 스님께서는 자기 가람수호(伽藍守護)에 여념(餘念)이 없는 것 같았다.

이 소리는 전북지방(全北地方) 소리와 같은 소리였고, 다만 지난날 백양사(白羊寺)의 전성기엔 밤을 지새워 범패(梵唄)소리 그칠 날이 없었다는 스님의 회고담(懷古談)에 저 오기 기유음(其遺音)이 귓전을 울리는 듯 깊은 감상(感想)을 자아내게 하였었다.

범패(梵唄)를 찾아 장장 수천리(數千里), 광주(光州) 목포(木浦) 각처(各處)를 두루 다녀 보았으나 가는 곳마다 찬란하였던 과거의 회고담만 들을 수 있을뿐,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멀리 바다 건너 제주(濟州)로 향하였다. 먼저 교육청(敎育廳)에 들러 사찰(寺刹) 명단(名單)을 확인(確認)한 다음 원명사(圓明寺), 관음사(觀音寺), 남선사(南禪寺) 등을 두루 다니다가 남선사(南禪寺) 강상용(姜尙容)스님이 보배로운 범패(梵唄)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고 이곳까지 찾아온 보람을 느꼈다. 이 소리는 역시 전남(全南)소리 계통(系統)임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이외(以外)에는 별 자료(資料)를 얻지 못하고 이 귀중한 소리를 기어코 온 도민(道民)에게 알리고 싶어 바쁜 시간을 방송국(放送局)을 찾아 강상용(姜尙容)스님의 소리를 전파를 타고 널리 퍼지게 하였다.

모처럼 제주(濟州) 여행(旅行)이건만 그렇게 원하였던 한라산 등산(登山)도 해보지 못한채 다시 발걸음을 범패(梵唄)있는 곳을 찾아 헤매어야만 하였다.

사불산성(四佛山城)을 기어코 듣고만 싶어 속리산(俗離山) 범주사(法住寺)의 문을 들어선 때는 나의 몸은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임은산(林隱山)스님을 만나 지난번 대구(大邱) 동화사(桐華寺)에서 들은 박동선씨(朴東宣氏)의 사불산성(四佛山城)과 비교(比較)해 볼 수 있는 기회(機會)를 얻어 사불산성(四佛山城)의 특징은 경산조(京山調)의 소리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하여 1965年 7月 25日에 시작한 범패조사(梵唄調査)는 8月 30日을 마지막으로 일단 귀경(歸京)하였다가 금년(今年) 팔월(八月) 다시 기회(機會)를 얻어 작년(昨年)에 가보지 못했던 전남(全南) 일부(一部)를 두루 다녀 보았다. 주로 이번은 동부전남(東部全南), 려수(麗水) 순천지방(順天地方)의 송광(松廣)·선엄사(仙嚴寺)이었는데 이 지방(地方) 소리는 서부전남(西部全南)과는 달리 쌍계(雙溪)·화엄사(華嚴寺) 계통(系統)의 소리와 같음을 알고 전국(全國) 범패(梵唄)의 구분(區分)과 분포(分布)를 나누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 범패(梵唄)의 구분별(區分別) 분포(分布)와 어장(魚丈)의 계보(系譜)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 1, 구분별(區分別) 분포(分布)

##### (1) 경산조(京山調)

- ① 서울중심(中心)소리—서울, 경기(京畿), 강원일원(江原一圓)
- ② 전라도중심(全羅道中心)소리—전북(全北), 전남서부(全南西部), 제주일원(濟州一圓)
- ③ 사불산성(四佛山聲)—충청도(忠淸道)

##### (2) 영남조(嶺南調)

- ① 부산중심(釜山中心)소리—경남동부(慶南東部) (범어사(梵漁寺), 통도사(通道寺) 계통(系統))
- ② 쌍계(雙溪)·화엄사중심(華嚴寺中心)소리—서부경남(西部慶南), 동부전남(東部全南)
- ③ 팔공산중심(八空山中心)소리—경북일원(慶北一圓) (팔공산계통(八空山系統), 은해사계통(銀海寺系統))

二、魚丈系譜

(1) 東山調

① 卍窟中心 소리

7. 東部



7. 西部

② 全羅道 中心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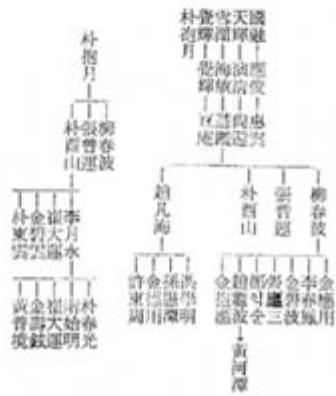


(2) 嶺南調

① 釜山中心 소리

7 碧波—安寬海—金龍雲  
7 中興—雪雨

② 双溪寺 華嚴寺中心 소리



(筆者·國樂藝術學校 教諭)

1. 어장계보(魚丈系譜)